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vol.17, December. 2023. 7~68.

논문

노근리사건 규명 · 노근리정신 정립과 기록의 힘

레코드 컨티뉴엄 및 공공역사 개념을 적용한 분석과 이해*

노명환**

목 차

1. 머리말
2.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과 공공역사 및 노근리사건 기록의 지속적인 의미 만들기
3.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에 기반한 노근리사건 규명과 노근리정신 정립
4. 『노근리사건법』 제정과 노근리정신의 함양 및 문화 창발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023년 12월 9일 한국외대에서 개최된 〈노근리 평화 문학 포럼〉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수정하였음.

** 한국외대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

■투고일: 2023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23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6일

www.kci.go.kr

[국문초록]

필자는 노근리 학살 사건 규명 및 노근리정신 정립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록의 힘에 대해 레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 및 공공역사(public history) 이론을 적용하여 조명했다. 사건의 발생 시점에서 생산된 기록들, 사건 피해자 및 가해 군인들의 기억과 증언의 구술 기록들,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산된 기록들, 다양한 기관들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기록들, 그리고 예술 · 문화로 승화되는 문화창발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 기록들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에 주목했다. 이 과정을 이끌어 가는 행위자들이 모든 기록들 사이에서 만들어 내는 상호 연관 맥락과 상호 작용의 과정을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 사이의 상보적 연계 차원에서 분석했다.

키워드 : 노근리사건, 노근리정신, 기록의 힘, 레코드 컨티뉴엄, 공공역사

www.kci.go.kr

1. 머리말

본고에서 필자는 노근리 학살 사건 규명 및 노근리정신 정립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록의 힘에 대해 레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1] 및 공공역사(public history) 이론을 적용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건의 발생 시점에서 생산된 기록들, 공중에서 비행기 폭격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총을 쏘아 학살을 자행했던 가해 미군들의 기억과 증언의 구술 기록들,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산된 기록들, 다양한 기관들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기록들, 그리고 예술·문화로 승화되는 문화 창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파악한다. 다양한 기관들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기록들 가운데 사건 당시 미군의 지휘 체계에서 생산되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보존소들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기록들이 증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노근리 학살 사건의 발생과 그동안의 규명 및 노근리정신 정립 과정은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기록의 증거성을 확보하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회적 의미들을 만들어 내는 매우 뜻깊은 역사 과정이었다. 달리 말해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공역사에 의거한 레코드 컨티뉴엄 전개 과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자들과 기록 간의 상호 작용의 과정 그리고 기록들 사이의 상호 연관 맥락을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의 연계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근리정신은 현재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1) Records Continuum은 '기록연속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번역어가 레코드 컨티뉴엄 본래의 의미들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 앞으로 적합한 번역어가 발굴될 것을 내다보면서 일단은 원어 본래의 의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으로 표기한다.

www.kci.go.kr

가고 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동족 북한이 일으킨 전쟁의 참상과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우방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학살사건을 고발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명확한 역사적 사실(史實)조차 부정하고, 미국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한 한국 사회에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규명 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와 불의함에도 또한 굴하지 않고 노근리사건 관련 문서기록을 찾으며, 실화소설과 학술논문을 발표하며 치열하고도 투철한 기록·역사전쟁을 전개했다. 이 결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기념사업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미군에 의한 다른 피해 사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거절하였고, 현재에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여정 자체가 바로 노근리정신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가해 미군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왔는데, 이는 노근리정신의 요체라고 하겠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 미군들도 또한 격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오고 있음을 인지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평상시의 인권 보호는 물론이고 전쟁 중이라도 생명과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바로 차별적이고 고유한 노근리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노근리정신이 폭넓은 시공간 속에서 발현되도록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다양한 인권·평화 교육 프로그램 및 대규모 국제 평화 학술 콘퍼런스 개최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적 측면의 활동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 및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며, 공존의 세계·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노근리정신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겠다.”[2)]

www.kci.go.kr

이러한 노근리정신이 현재와 미래에도 기록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세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끊임없이 기록의 힘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사례다. 이 기록의 힘은 인간과 기록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발전되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이 서로 연결되고 새롭게 맥락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간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근리 학살 사건 규명과 노근리정신 정립 과정은 주로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학술적인 역사 연구·교육 기관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는 공공역사의 매우 의미 있는 실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록과 인간이 연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이 과정은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기초한 공공역사를, 역으로 공공역사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전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노근리 학살 사건의 발생과 그동안의 규명 및 노근리정신 정립 과정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과정들을 가능하게 했던 기록의 힘을 상보성의 관계에 있는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노근리 학살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문서기록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기록들이 생산되었다. 생존 피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신체적 상흔, 가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노근리 쌍굴 내외부에 박힌 탄환과 탄흔들이 단적인 예로 중요한 기록들이다. 그런데 생존 피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그리고 사건 현장의 여러 물리적인 기록들은 진상규명활동 초기에 객관성과 증거성의 측면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근리사건 피해자들

2) 정구도 이사장과의 인터뷰 (2023. 12. 09) 중에서.

www.kci.go.kr

은 이 사건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기록들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 NARA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 미군 작전 일지, 지휘 체계 내에서의 지시·명령 및 제반 소통 등 새로운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서로 연결되고 새롭게 맥락을 구성하면서 증거성을 갖춘 기록으로서 수용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 NARA의 기록들은 생존 피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신체적 상흔, 가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노근리 쌍굴 내외부 콘크리트 벽면에 박힌 탄환과 탄흔들에 증거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핵심 내용처럼 재현의 흔적에서 증거로, 더 나아가 증거에서 개인 및 조직의 기억으로, 다시 집단 및 사회 기억으로 개념적 구성을, 즉 의미 만들기를 지속하게 만들었다.[3] 이러한 레코드 컨티뉴엄 과정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중심이 된 공공역사 활동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서, 청원서 등 여러 새로운 기록들이 생산되었는데, 이들 또한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공공역사 활동의 일환이었다. 기록들의 상호 연결과 맥락 구성을 통해 증거성을 확보한 후에는 용서와 화해, 치유와 평화를 위한 예술문화 창발의 의미 만들기를 계속해 갔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는 노근리정신을 정립해 가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노근리정신의 함양과 보다 넓은 사회적 공유를 위해 교육 및 문화 창발의 장들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새로운 기록들이 생산되었다. 노근리사건 관련 이러한 기록생산 및 수집, 지속적인 맥락 구성 및 해석은 레코드 컨티뉴엄의 과정이고, 공공역사의 한 귀중한 사례가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생존 피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그리고 사건 현장의 여러 물리적인 기록들을 결집한 정은용의 실화 소설 『그대,

3) 관련하여 윤은하, 「노근리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권 2호, 2016. 참조.

www.kci.go.kr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특별히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의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헌장의 전문에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뜻한다. 본문에서 설명하는바,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속에서 그러한 공공역사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문에서 보듯이 이들은 이들에게 직접 총을 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용서했다. 한국전쟁 후 태어난 정은용의 아들 정구도는 자신의 박사학위 졸업논문을 쓰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소설 원고 집필 작업을 도와주면서 노근리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참여 과정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나는 어쩌다 천부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살게 됐다. 하지만 하늘이 나에게 내린 소명이라 생각하며 온몸을 바치겠다. 내가 노근리사건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족 같은 불행한 한국인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5,000년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한반도에 어떤 이유로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4] 이러한 신념과 실천들은 노근리정신으로 정립되어 갔다. 노근리정신의 핵심인 인권·화해·용서·평화·공존을 위해 우리는 세계인들과 함께 마음을 갈고닦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세계적·지구적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위에서 설명한 공공역사의 세계적인 소통과 확산을 추진해 갈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공공역사들을 연계하여 진정한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역사를 견인해 갈 수 있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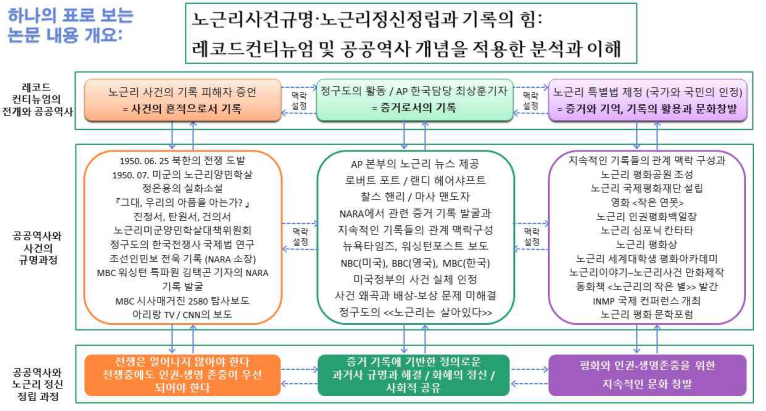
4)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11쪽.

www.kci.go.kr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세계와 지구 차원에서 노근리정신을 드높일 수 있겠다. 전쟁 없는 평화는 물론 자연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인공지능 등 정보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너와 내가 우리 되는' 평화와 상생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구체적으로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반한 공공역사를 잘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예시적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 개념도



2.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과 공공역사 및 노근리사건 기록의 지속적인 의미 만들기

1)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레코드 컨티뉴엄 (Records Continuum) 이론을 1990년대 중반에 호

www.kci.go.kr

주 모나쉬 대학교의 연구자들인 업워드 (Frank Upward), 미케미쉬 (Sue McKemish), 리드 (Barbara Reed) 등이 정립하였다. 이들은 먼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레코드 컨티뉴엄 개념을 둘러싼 당시의 초보적 사유체계를 정리하면서 심화시켰다. 전자기록의 속성을 새롭게 성찰하고, 탈근대 사상(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지속적인 융합 창발의 사상을 도입하여 이론 체계를 집대성하였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속적인 해체와 재구성, 끊임없는 새로운 맥락 구성과 변화·생성의 동적인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아도르노(Theodor Ludwig Wiesengrund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 같은 사상가들의 반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위에서 아래로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 주체들의 상호 소통과 작용을 중시했다. 미셸 푸코의 (Michel Foucault) 지식의 고고학과 에피스테메의 개념과 같은 통시적·동시적 다양한 가치체계들과 이들 조건 속에서 생산되는 지식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차연(差延)과 해체, 롤랑 바르트(Roland Gérard Barthes)의 저자의 죽음,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노마디즘(nomadism) 같은 개념들을 받아들여 기록의 끊임없는 새로운 맥락 구성과 해체·변화·생성을 이론화하였다. 이들을 종합하면서 기든스의 구성주의, 구조화 이론에 기초하여 레코드 컨티뉴엄을 구체화하였다.

그리하여 이 레코드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시대에 기존의 생애주기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대 기록학의 핵심으로 그리고 실무 지침의 방향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록은 지속적인 맥락의 구성과 함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갔다. 그들은 기록을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으로 구별하고, 특히 세 번째인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5]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기록은 종래의 문서만이 아

www.kci.go.kr

니라 문화적 감수성이 큰(culturally sensitive) 구술, 사진 및 영상, 의복 및 생활용품, 민속 등을 포괄하게 되었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이러한 확장된 기록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필자는 본 논문을 위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가들이 주목한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 즉 기록의 본질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방향성을 끊임없는 맥락의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 속에서 찾았던 측면에 주목한다. 그들은 이러한 기록과 기록관리 및 기록의 성격 변화를 특히 기든스의 사회구성 원리로서 채택된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과 접목하여 설명했다. 이러한 그들의 이론과 사상은 다음과 같은 〈그림 2〉 도해에 압축되어 나타나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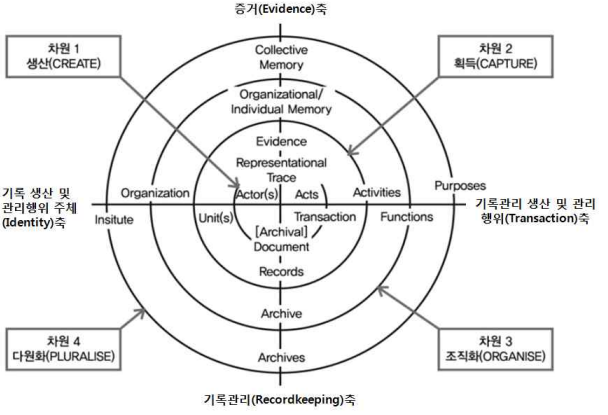
---

5) Upward, Frank,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1996.

6) 업워드가 1996년에 출간한 "part one" 논문에서의 (p. 6) 도해와 그가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와 함께 편저자로 2005년에 출간한 단행본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의 8장 "Records Continuum"에서 (p. 203) 제시된 도해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앞의 논문 도해의 증거축선에서 차원 1과 만나는 접점이 representational trace이다. 그러나 뒤의 책에서는 단순히 trace로 명기되어 있다. 논문에서의 Recordkeeping 축선은 책에서 Recordkeeping Container 축선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Upward 교수에게 2016년 2월 1일 이메일로 문의하였고, 앞의 경우는 representational의 수식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2016년 2월 3일 이메일로 받았다. "Regards representational trace and trace I decided that representational was redundant".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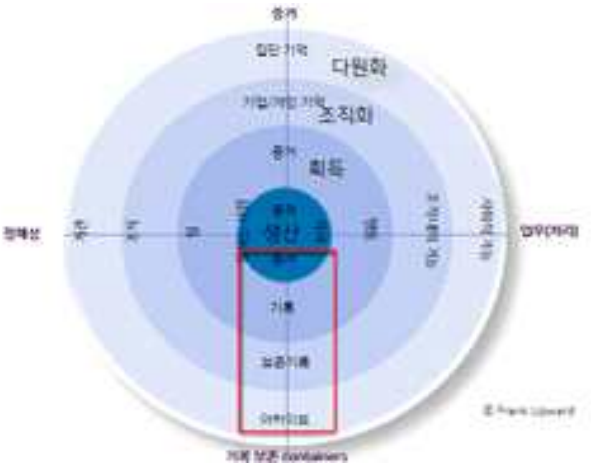
〈그림 2〉 업워드의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



도해는 4개의 축선과 4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에서 축선은 기록의 생산자 및 관리 행위자와 기록의 역할 및 존재 형태를 나타내 준다. 4개의 축선은 '증거(Evidence)축', '기록 생산 및 관리 행위 주체(Identity)축', '기록관리(Recordkeeping)축', '기록 생산 및 관리 행위(Transaction)축'을 말한다.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서처럼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기록 생산 및 관리 행위가 기록에 대한 맥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행위가 기록 및 이를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일어난다. 차원은 생산(Create), 획득(Capture), 조직화(Organizing), 다원화(Pluralizing)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해를 보다 단순화시켜 아래와 같이 그려볼 수 있겠다.

www.kci.go.kr

〈그림 3〉 단순 명료성을 위한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 변형



위 도해들에서 ‘증거 축선’의 경우, ‘생산 차원’과 만나는 접점은 단일 업무자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 문서가 그 업무 행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재현의 흔적’을 뜻한다. 이는 맥락을 갖추지 못한 문서의 재현 기능으로서 아직 증거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설명할 노근리 학살 사건에서 발생한 기록들이 서로의 맥락 구성을 통해 아직 증거성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속의 레코드 컨티뉴엄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높은(culturally sensitive) 실체들이 또한 기록으로 포착된다. 그리하여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신체적 상흔, 가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노근리 쌍굴 내외부에 박힌 탄환 등이 기록으로 포착될 수 있다. ‘획득 차원’과 만나는 접점은 이러한 문서 및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높은 대상들이 복수의 업무자 사이에 소통됨으로써 기록으로 구성되고 증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정황을 상징해 준

www.kci.go.kr

다. 예를 들어, 이는 본문에서 설명할 노근리 피해자들의 기억과 증언, 신체적 상흔 등이 미국 NARA의 문서기록들과 연계되어 맥락을 구성하면서 증거성을 획득하는 상황을 뜻한다.

'조직화 차원'과 만나는 접점은 이 증거에 기초하여 업무 조직체가 '조직의 기억'을 구성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는 본문에서 설명할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기록들이 노근리 피해자 공동체 차원에서 기억, 치유 등과 함께 노근리정신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원화 차원'은 이 '조직의 기억'이 업무 조직을 벗어난 차원의 집단 기억, 즉 사회 기억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상징해 준다. 이는 본문에서 설명할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기록들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화해와 평화·상생을 위해 세계·지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념적 구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레코드 컨티뉴엄의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 속에서 생성·발전하는 노근리사건과 그 이후의 기록의 힘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은 정구도의 언급과 연계하여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에는 '타바크'라는 나무가 있다. '타바크' 나무의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 30년 전에 가졌던 나의 작은 생각과 조그만 헌신이 타바크 씨앗처럼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에 무한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7]

2) 공공역사와 레코드 컨티뉴엄

공공역사(public history)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역사 재현의 실천 및 연구·교육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7)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12-813쪽.

www.kci.go.kr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전후 서독에서 이러한 방향의 역사 연구와 교육, 각종 역사 재현의 실천 활동이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문화·기억문화·역사작업장운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공역사라는 개념으로 확대·발전하였다.[8)]

서독에서 이러한 공공역사 내용이 일찍이 자리 잡은 것은 나치 시대에 대한 참회와 반성 등에 크게 기인했다. 유대인 학살 등 반인륜적인 범죄의 원인으로서 역사주의로 대변되는 정치 사건사 중심의 민족주의·국가주의에 매몰된 역사,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주의 역사관(歷史觀)과 권위주의 역사 학문 및 교육에 대한 치열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등이 또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밑으로부터의 역사', 일상사, 사회사 등의 이름으로 연구와 교육 및 사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은폐된 어두운 역사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풍이 대학의 학문·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벨러(Hans-Ulrich Wehler)를 태두로 한 빌레펠트 학파(Bielefeld Schule)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나치 시대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전후 세대에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구술로 들려주었다.[9)] 이렇듯 나치 시대에 대한 활동들이 공공역사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전후 분단되었던 독일이 다시 통일된 이후에는 분단 시대의 역사와 유산에 대해서도 활발한 공공역

8) 이동기, 「공공역사 :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 2016, 119-122쪽; 124-125쪽.

9) 마르틴 뤼케, 이름가르트 췬도르프 저, 정용숙 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0, 121-127쪽; 허영란, 「지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공공역사」 In 이하나 편, 『공공역사를 실천중입니다』, 푸른역사, 2023, 294쪽.

www.kci.go.kr

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다 전후의 탈근대 사상(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컸다. 이러한 역사 운동과 대학의 역사학에서 반계몽주의 운동을 하는 사회학자들로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같은 지식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과 에피스테메, 자크 데리다의 차연. 롤랑 바르트 저자의 죽음 등의 개념이 '역사가의 죽음', '우리 모두가 역사가다', 차후에는 '아키비스트의 죽음', '우리 모두가 아키비스트다'는 입장을 가능하게 했다.[10] 이러한 사상들과 함께 들뢰즈의 노마디즘은 끊임없는 새로운 맥락 구성, 변화·생성의 동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간주관성의 소통과 소통 주제들의 상호 작용 과정에 눈뜨게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사회사, 신문화사, 구술사, 미시사 등 역사학의 새로운 영역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앞 절에서의 관련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는 공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 현대사 전공자들이 공공역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는데[11], 한국 사회에 이미 내재해 있는 공공역사와 유사한 경향과 연결되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12] 즉, 한국에서는 독일사를 비롯한 서양사 연구자들이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공공역사 현황을 소개해 주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받아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이 구체

10) 김태현, 「공공역사(public history)를 위한 아카이브 큐레이팅과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8), 29-31쪽.

11) 시발점으로 이동기의 논문, 「공공역사 :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 2016; 단행본 번역서로서 마르틴 뤼케, 이름가르트 췬도르프 저, 정용숙 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0.

12) 이하나, 「공공역사 논의의 한국적 맥락」 In 이하나 편, 『공공역사를 실천중입니다』, 푸른역사, 2023, 30-32쪽.

www.kci.go.kr

적인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였다.[13]

공공역사는 대중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역사로서 공공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무엇이 공공성인가' 하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다.[14] 필자는 공공성은 소통과 상호작용의 공론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15] 따라서 공공역사, 공공역사가 등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한정시키고 고정시켜서 정의하기가 힘들다. 공공역사 전문가 이하나에 따르면 "모든 공적 영역에서의 역사 해석은 역사의 다양한 진실을 둘러싼 자유로운 경합 속에서 이해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역사가'를 엄격하게 닫힌 개념으로 정의하고 뭔가 권위와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공공역사의 전략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16]

대중들은 공공역사를 통해 다양한 기억과 역사관(歷史觀)의 소통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자랑스러운 기억 내지는 아픈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지향한다. 이와 함께 공동으로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며,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가해와 피해의 기억을 공유·소통하며 화해를 추진하고 트라우마로부터의 치유를 추구한다. 이렇듯 공공역사는 근원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을 소통 속에서 공유하면서 역사를 공유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가고

13) 예를 들어,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단행본 발간(2021) https://museumnews.kr/276enjoy01/; 2021년 제1차 공공역사포럼〈나에게 '공공역사란 무엇인가'〉(2021. 4. 16.); 제2차 공공역사포럼 〈역사학에서 장소아카이빙의 가능성과 한계〉(2021. 6. 17.); 제3차 공공역사포럼 〈팬데믹 시대, 박물관은 무엇을 할 것인가?〉(2021. 11. 19.).

14) 예를 들어, 이동기, 「공공역사의 쟁점과 과제」, 『독일연구』, 52, 2023. 참조.

15) 필자는 공론장의 개념으로 기록보존소를 파악한 바 있다.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서양사론』 110호, 201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공공역사의 개념으로 연결하도록 시도한다.

16) 이하나, 「서설. 풍부한 현실, 이론의 빈곤」, 이하나 편,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푸른역사, 2023, 19쪽.

www.kci.go.kr

자 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인간의 대응에 따라 무서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행복하고 포근한 향수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공역사가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사는 인간의 삶 및 사회적 삶을 의미함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차적으로 아카이브,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기록학 분야에서도 공공역사에 부응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련 기록을 공유하고, 함께 해석하고 토론하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아카이브가 공공역사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17] 여기에서 대중들이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 각종 역사 콘텐츠 제작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록들을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생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상아탑의 전문 역사가는 물론 공공역사가로 이해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효율적인 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아키비스트는 일정부분 역사가로서 그리고 큐레이터로서 인정을 받으며 공공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적인 상아탑의 전문 역사가의 연구 결과물들도 광범위한 대중 층과 만나 그 활용 효과를 크게 배가시킬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시대에 이러한 공공역사를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18]

---

17) Hoyle, Victoria, "Editorial: archives and public history", in: *Archives and Records,* 38(1):1-4, January 2017; Haunton, Melinda & Salzedo, Georgie, "A duty, an opportunity and a pleasure": connecting archives and public history, in: *Archives and Records*, 42(2), November 2020.

18) 노명환, 「디지털 아카이브와 큐레이션에 기초한 디지털 역사학, 공공역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세계의 평화·상생을 향하여」, 『역사문화연구』, 제79집, 2021.

www.kci.go.kr

공공역사는 배제·은폐·소외되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역사 인식의 전환, 치열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 속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주·정의·평화와 풍요로운 문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운동 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노근리 학살 사건의 규명과 노근리정신 정립 과정은 이러한 공공역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총성 없는 역사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공공역사의 중요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평범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21세기 로마제국이라 불리는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당당하게 맞섰다."[19] 그러면서 이들은 아래와 같은 미래의 시간과 세계라는 공간을 위해 의미 만들기를 지속하고자 한다. "세계 도처의 전쟁터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을 추모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가 활짝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20]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재현의 흔적'에서 증거로, 증거에서 개인 및 사회적 기억으로의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 즉 의미 만들기를 인간이 공공역사를 통해서 실현한다. 본문에서 보듯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사건 규명을 위한 활동은 공공역사로서 노근리 학살 사건 관련 기록들이 '재현의 흔적'으로부터 강력한 증거자료로 구성되고, 또한 비극과 트라우마의 상징에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기록으로 노근리정신을 정립해 가면서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19)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12쪽.
20)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13쪽.

www.kci.go.kr

3.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에 기반한 노근리사건 규명과 노근리정신 정립

1) 노근리 비극의 발생과 기록의 생산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적과 동지로 나뉘어 여러 크고 작은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죽이고 가해하는 끝도 없는 비극이 전개되었다. 북한의 전쟁 도발로 시작된 동족 간의 전쟁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면서 잔혹하게 진행되었다. 동족 간에 수행된 전쟁에 참여한 외국의 군대들과 얽혀 복잡한 문제들이 또한 야기되었다. 이 중에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우방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참전하였던 미군이 피난민들을 무참하게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에 의한 이 무도한 양민학살 사건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50년 7월 23일 영동군 주곡리 주민들은 미군의 피난 작전 명령에 따라 고향 마을을 버리고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임계리로 떠났다. 25일 미군들은 이곳에 모인 500~600명의 사람들을 인솔하여 남쪽으로 피난길을 시작했다. 26일 서송원리 부근을 지날 때부터는 미군 명령에 따라 철로로 올라가서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노근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몸수색이 있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때 미군 비행기의 폭격이 이루어졌다.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100여 명이 죽었다. 철로로 올라가게 한 것은 폭격 살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같았다. 지상의 미군들은 생존자들을 쌍굴다리로 피신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쌍굴 양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다 기관총을 설치하고 3박 4일 약 70시간 동안 사격을 지속하였다. 300~400명의 피난민들이 사망하고 극히 일부가 심신의 깊은 상처를 입은 가운데 생존했다.

www.kci.go.kr

이 과정에서 그 참혹한 현장을 나타내 주는 여러 다양한 기록들이 생산되었다. 이 학살 현장에서 생존한 피해자들은 심신의 상흔과 기억, 현장의 총탄과 자국 등 기록들을 제시하면서 당시의 참극에 대해 증언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증언 내용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학살 현장에 당시 해당 미군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군의 지휘 계통 속의 작전일지, 통신문, 명령지시 하달문 등 문서기록이 생산되어 보존되어 있었다. 이 문서기록들은 일본을 통해 미국 NARA로 송부되어 보존된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명령을 받아 수행한 가해 미군들의 기억의 기록들이 생산되어 가고 있었다. 차후 이러한 기록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맥락을 이루면서 증거성을 갖는 기록으로서 노근리사건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의 힘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노근리라는 공간에서 같은 시점에 생산되었던 기록들은 시공을 달리하면서 각자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개념적 구성을 지속하다가 온·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 새롭게 맥락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서로 만나 맥락을 이루면서 기록들이 증거성을 획득하게 되는 데는 사람의 역할, 즉 이 논문에서 필자가 말하는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공공역사'의 작용이 컸다.

그런데 이렇게 노근리사건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의 공공역사 전개는 냉전·분단 시대, 특히 6·25 이후의 시기에 북한에 동조하고 미국에 반하는 것으로 쉽게 오해받기도 했다. 노근리 비극과 같은 사건의 진정한 과거사 정리는 세계적으로 냉전·분단 시대의 긴장이 완화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은 군부 독재들이 철폐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www.kci.go.kr

2) 생생한 현장 기록의 증거성 불인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문서기록 찾기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들에 기초하여 정은용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제목의 장편 실화 소설을 긴 시간 동안 집필하고 1994년 4월에 출간하였다. 정은용의 이 소설을 우리는 공공역사의 관점에서 특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1977년 11월 《월간 한국문학(韓國文學)》의 중편소설 부문 예선 당선작으로 선발된 "버림받은 사람들"의 연장선이었다. 집필 작업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데, 단독소설로 출간되기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화를 기다려야 했다.

정은용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의 아내 박선용과 다섯 살 난 아들과 두 살 난 딸이 그곳 현장에 있었는데, 아내는 총상을 입으면서도 겨우 생존했고, 어린 아들과 딸은 총탄에 숨졌다. 정은용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그리고 현장의 생존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서로 연결하고 비교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 소설을 집필했다. 이는 공공역사에서 기록수집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매체로의 편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이며, 생존 피해자·유족들 사이에 공론장이 형성되고 개인의 기억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공공의 기억으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 등 관련 기관과 사회가 이 기록들을 증거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레코드 컨티뉴엄 측면에서 보면, 사건 현장에서 생산된 흔적으로서의 기록들이 상호 맥락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증거로서의 기록의 성격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노근리사건 장편 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가 출간된 직후부터 정구도는 내외신 언론사들에 노근리사건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이유는 정은용 실화소설에 대한 기사가 2-3번 나온 후에는 더 이상 뉴스로서 취급되지 않아서 노근리사건의 내용과 성격 등

www.kci.go.kr

에 대해서 알려야 보도가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정구도는 소설가 정은용 이름으로 언론에 사건을 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피해자대책위원회 구성을 부친 정은용에게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한 화답으로 정은용은 이 실화소설을 출간한 지 2개월 후인 1994년 6월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 이하 노근리사건 대책위〉를 설립하고, 위원장 일을 맡았다. 정구도는 대변인이자 기획위원을 맡아 실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1] 이 단체는 정은용·정구도 부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건 현장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사건 규명을 위해 여러 관련 기관에 진정서, 청원서, 보도요청자료 등 새로운 기록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갔다. 노근리 공공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근리사건에 대한 초기 공공역사의 과정이 언론 등 외부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정은용의 소설은 중대한 역할을 했다. 공론의 장을 확산시키고, 언론들이 노근리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정구도가 나서서 내외신 언론사를 섭외하면 생존피해자 정구호, 양해찬이 증언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도가 이어지자 사람들이 조금씩 공명하기 시작했고, 공론장의 확장을 차근차근 이루어 갔다. 정구도의 노근리사건 보도를 부탁받고 정은용의 소설을 읽은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의 장희옥 기자는 "세상에 다른 나라도 아닌 우방국인 미국의 군대가 어찌 그리도 잔인하게 양민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는 울분을 토하면서 같은 언론사의 유창석 기자가 정은용 책에 대한 서평 기사를 내도록 제안하였다(1994년 4월 29일). 《한겨레신문》 황순구 기자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취재하여 지방판에서 기사화하였다. 처음으로 노근리사건이 기사화되었다. 《말》지의 오연호 기자의 활동은 대단히 인상적이고 적극적이었다.

〈노근리사건 대책위〉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 사건 규명 및 피해자 배·

21)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정은용, 대변인 정구도 부자 외에 양해찬, 고(故) 서정구, 고(故) 정구호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www.kci.go.kr

보상을 위한 진정서, 청원서 등을 약 20차례 제출하였다. 이럴 때마다 두 정부 모두로부터 무반응 내지는 냉랭한 반응을 얻었다. 미국 정부는 노근리사건 자체를 부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제1기병사단의 예하부대인 제7기병연대가 학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미국 정부는 "사건 당시 미 제1기병사단 병력이 노근리에 주둔했다고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며 부인하였다.[22]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노근리사건 대책위〉 활동은 북한에 동조하고 미국에 반하는 타당한 근거가 부족한 무책임한 행위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래도 1993년부터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노근리사건 관련 공공역사가 민주화의 시공 속에서 제대로 전개될 수 있고, 역으로 이 공공역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명백한 증거의 기록들을 확보함으로써 타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구도는 실화소설 한 편으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이슈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명백한 증거가 되는 문서기록들을 확보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서 정구도는 노근리 학살을 나타내 주는 《조선인민보》 전욱 특파원의 기사를 발견했다. 이 기사를 담고 있는 《조선인민보》는 미국 NARA에 소장되어 있었고, 한국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에서 복사해 와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민군신문의 기사 내용이라 활용하는 데 부담이 컸다. 이 기사는 북한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비극을 증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기록 같았다. 다른 기록들을 또한 찾아야 했다. 그러

22) 〈노근리사건 대책위〉가 SOFA규정에 근거해 제출한 손해배상 지급신청에 관련한 답변에서 주한미군 배상사무소는 1997년 10월 6일 자로 노근리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www.kci.go.kr

나 이 기록은 노근리사건이 기록화되어 있다는, 그래서 다른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측면에서 그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었다.

정구도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950년 8월 19일자) 〈조선인민보〉 기사는 학살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취재한 6단 크기의 기사였다. 〈조선인민보〉 전욱 특파원이 미군이 철수한 직후 노근리학살사건 장소인 노근리 쌍굴의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자세히 보도한 르포 기사였다. 나는 비록 〈조선인민보〉라는 신문이 좌익을 대표하는 신문의 하나였지만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상세하게 보도한 그 기사는 노근리사건의 '결정적 증거(smoking gun)'라고 판단했다. 그 신문의 원본은 북한이 아닌 미국 NARA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문서는 한국전쟁에 관련된 문서 자료 100만 건 중의 하나였다. 증거자료를 찾기 시작한 지 석 달만의 개가였다. 노근리학살 사건 현장에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을 발견한 것은 나에게 미국과의 역사전쟁을 계속 수행하라는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수개월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찾았던 노근리사건에 관한 증거 문서는 〈조선인민보〉 기사 외에 1건이 더 있었다. 이 문서들은 후에 미국 대통령이 유감표명 성명서를 받아내는 데 주요 단서이자 시발점이 됐다. 사실 그때 내가 그 문서를 찾지 못했다면 나는 더 이상 노근리 이를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 오늘날의 노근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어 계속된 기적 같은 일들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23]

정구도는 위 기록의 출처가 미국 NARA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기

23)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56-57쪽. 이 인용문에서 〈조선인민보〉 기사(제40호 기사 (1950. 8. 10), 조선인민보 제49호 기사 (1950. 8. 19)) 외에 한 건의 문서가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군 문서를 노획해서 영문 번역한 문서였다.

www.kci.go.kr

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친구인 서울대 국사학과 송기호 교수의 설명을 통해 NARA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NARA에서 자료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NARA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구도는 증거가 되는 문서기록을 찾고, 피해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관련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갔다. 〈노근리사건 대책위〉 위원들 특히 정은용, 정구도 부자는 레코드 컨티뉴엄 차원에서 보면 재현의 흔적에서 증거로서의 개념적 구성과 청원서 및 진성서, 보도요청자료 등의 새로운 기록 생산의 주체였다. 즉, 이들 부자는 리더십을 가지고 공공역사를 이끌어 가는 능동적인 주체였다.

3) 기록의 세계적 공유와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

정구도는 내·외신 등 보다 폭넓게 다양한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면서 부친인 정은용의 책과 자신이 찾은 문서기록들을 기반으로 사건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는 1995년부터 《CTS기독교TV (이하 기독교TV)》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함께 일하다가 이직하여 영어방송사인 〈아리랑 TV〉에서 근무하는 김진희 기자의 도움을 받아 노근리 학살 사건의 뉴스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 기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아리랑 TV에서 방송이 이루어졌고, 그 후 정구도는 김진희 기자에게 “아리랑 TV와 제휴를 맺고 있는 해외방송사의 뉴스보도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김진희 기자가 애쓴 결과로 《CNN》에서 노근리사건에 대한 방영이 이루어진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구도가 《CNN》의 방송테이프를 가지고 《MBC》 전동건 기자를 만나서 보도를 부탁했다. 전 기자는 《MBC》의 〈시사매거진2580〉에서 노근리사건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전역에 노근리사건이 일정부분 알려지게 되었다.

www.kci.go.kr

《MBC》〈시사매거진2580〉 팀의 요청으로 워싱턴 특파원 김택곤 기자는 계속해서 미국 NARA의 기록들을 뒤지면서 증거기록들을 찾아 나섰다. 노근리사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던 김택곤은 당시 〈노근리사건 대책위〉 위원이자 《기독교TV》 총무부장인 정구도와 소통하면서 관련 기록들의 일부를 NARA에서 발견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 제 5, 7, 8 기병연대의 작전 일지 및 작전 명령에 관한 기록들 일부를 찾아냈다. 이렇듯, 실제적으로 명백한 증거의 기록들을 발견·수집하면서 진상규명 작업은 큰 힘을 얻어 갔다. 그러나 김택곤 기자는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임해야 했다.

주한미군 배상사무소가 1997년 10월 6일 자로 노근리사건 현장에 미군이 없었다며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때 정구도는 미국 정부에 진정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에다 노근리사건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또한 정구도는 노근리사건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와 논문을 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구도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발굴했던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들과 《MBC》 김택곤 기자가 구해온 NARA 문서 기록들에 의거해서 충북대 사학과 최병수 교수와 함께 역사 연구를 수행했다.[24] 이어 충남대 법대 이재곤 교수와도 노근리사건에 대해 한 미국 정부의 책임 유무를 검토하는 국제법 측면의 논문을 2편 집필하였다.[25] 이를 통해 학술적으로 노

24) 최병수·정구도, 「6·25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 노근리의 미군 대 양민 집단 살상 사건을 중심으로」, 『인문학지』, 17권 1호, 1999.2.

25) 이재곤·정구도·오윤석,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한국전쟁 시기 소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민간인 살상사건'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0권 1호, 1999., 이재곤·정구도,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8. 12.;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

www.kci.go.kr

근리 학살 사건을 규명하고 발표된 논문 별쇄본을 당시 노근리사건을 취재하고 있던《AP》취재팀에 제공하는 등 국내외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NARA 문서들과 이들 논문은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하원의장에게 청원서를 보낼 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기독교TV》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정구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미국기독교협의회(NCC - U.S.A)와 국제적인 연대가 강한 것에 착안해서 NCCK와 관계를 맺고, 이 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97년 12월 2일, 노근리 현장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진상보고서를 작성했다. NCCK는 그 후 NCC - U.S.A의 협조를 받아 미 국방부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진정서에 대해 미 육군성은 1999년 3월 22일 자로 "제1기병사단과 예하 작전 기록과 미8군 작전일지 등 여러 기록을 조사해 봤으나 미 육군이 노근리사건에 개입한 정보는 없다"라며 미군의 개입을 거듭 부인하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 기관은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노근리사건 해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

정구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까지의 성과들을 가지고 노근리사건을 미국 언론인《Associated Press (이하 AP)》와 유력 언론 기관들을 통해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명예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노근리사건을 감추고자 할지 몰라도 민주주의 나라로서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고 다양성이 살아 있는 미국 사회가 노근리사건의 교훈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았다.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미국은 법치국가

제평화재단, 2020, 77-79쪽.

www.kci.go.kr

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매우 언론이 활성화된 나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미국 정부에 진정하고 미국 언론에 호소했을 때, 노근리사건이 미국의 국익과 명예에 반하는 사건이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또한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의 역사전쟁이자 기록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나의 관점에 덧붙여, 노근리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기에 이를 정확하게 취재 보도한 언론인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언론상인 퓰리처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신념과 객관적인 관점이 있었기에 결코 쉽게 진상규명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 33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26]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내의 여러 보도들을 접한 《AP》 한국지사 최상훈 기자가 정구도와 소통하였는데, 이 인연이 결과적으로 노근리사건을 세계적 이슈로 만드는 데 중대한 전환점의 서곡으로서 작용하였다. 정구도는 당시까지 수집된 기록과 언론 소개 정보 및 자신이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최상훈 기자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MBC》의 김택곤 기자가 미국 NARA에서 찾은 기록들도 전달하였다. 이를 기초로 최상훈 기자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AP》 본사에 알리면서 보도를 이어갔다. 《AP》 본사의 국제부 부편집장 케빈 노블렛(Kevin Noblet)과 편집장인 로버트 포트(Robert Port)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뉴스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로버트 포트는 '특별 임무팀'의 연구원 랜디 헤시차프트 (Randy Herschaft)를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에 위치한 미국 NARA 제2청사에 보내 《MBC》의 김택곤 기자가 한 것처럼 관련 기록들을 찾도록 했다.[27]

---

26)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79-82쪽.
정구도와의 인터뷰 (2022년 11월 24일) 중에서.

www.kci.go.kr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헤시차프트는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기록들을 다량으로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5주째인 7월 27일, 미 제1기병사단 바로 옆에 주둔했던 미 제25사단장 윌리엄 킨(William Kean) 소장이 작성한 메모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그의 메모는 미군이 무고한 수백 명의 피난민을 총살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메모에다 학살 사건이 일어난 노근리를 포함해 약 백 제곱마일이 넘는 한국의 중부 지역을 나타내 주는 지도를 포함시켰다. 헤시차프트는 노근리사건 당시 미 제1기병사단의 예하 부대인 제7기병연대가 노근리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다른 기록들도 찾았다. 이에 더해 한국전 당시의 지도 기록들을 활용하여 사건 규명을 위해 중요한 맥락들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어, 《AP》 취재팀은 날짜, 시간, 좌표 등을 기록한 통신 기록과 다른 문서들과의 맥락 관계 속에서 제1기병사단의 예하 부대인 제7기병연대가 학살이 일어난 시점에 노근리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리하여 그동안의 노근리 공공역사 활동이 연구를 통해 특정했던 그 주둔 부대가 확인되었다.[28]

그 외에도 노근리 학살 사건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로버트 포트, 케빈 노블렛, 랜디 헤어샤프트, 찰스 핸리, 마사 맨도자가 팀을 이루어 기록 발굴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기록들 속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기록의 맥락 관계 구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은폐되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29] 이 기록들은 한국전쟁 중 일본에서 취합되어 미국 NARA로 이관된 것들이었다.

《AP》 특별임무팀은 참전 군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국 미주리주 세인

27)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3쪽.
28)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4-85쪽.
29)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4-85쪽.

www.kci.go.kr

트 루이스 NARA의 군 인사기록 문서에서 부대원 명단을 확보하고, 가해 병사들의 구술 증언을 채록하였다. 가해 병사들이 증언하기 시작하였는데, 노근리 학살 사건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AP》의 서울취재팀과 미국의 《AP》 본사가 지속적으로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성을 확보하였다.[30]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해 미군들은 '아무도 전선을 건너서는 안 된다'라는 당시의 명령을 기억해 내고, 상관의 명령으로 사격을 가했다는 증언을 얻어냈다. 이들은 '어떤 피난민에게도 미군 전선의 통과를 허용하지 말라. 전선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포하라. 여성과 어린이의 경우는 신중을 기하라'라는 미 제1기병사단의 예하 부대인 제8기병연대의 통신문과 일치하였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미 제25사단장의 피난민 통제명령서와 같은 문서 기록의 내용들과 일치하였다.[31]

이러한 문서 및 구술 기록들에 의거하여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전쟁 초반 미군은 연전연패했는데, 그때 북한군은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그들 속에 섞여서 미군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공격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은 피난민들을 자신들의 전선 후방으로 보내는 데 주저하게 되고, 종국에는 소위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전선에 다가오는 피난민들을 전멸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근리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를 성찰적으로 판단해 보면, 북한군이 미군의 작전 지역 후방으로 잠입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군은 인권·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효

30)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5-86쪽.
31)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01쪽.

www.kci.go.kr

율적인 전쟁 수행의 방법들을 택함으로써 형언할 수 없는 비극들을 만들어 냈다. 특히 노약자, 여성, 아이들을 무차별 폭격, 총격하는 학살 만행을 감행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각 기록들의 지속적인 맥락 관계 구성 과정은 사건 초기의 기록들이 증거성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즉, 피해자의 기억, 가해자의 기억, 노근리 쌍굴의 벽면에 박힌 탄환 등 물질적 증거 기록, 미국 NARA의 문서기록 등이 연결되고 맥락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증거력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져 갔다. 구체적으로 보아,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의 증거 축선에서 기록의 생산(Create) 차원과 만나는 지점인 '재현의 흔적으로서 기록'에서 획득(Capture) 차원과 만나는 '증거로서 기록'으로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졌다. 각 기록들은 그 자체로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노근리사건을 설명해 주는 기록으로 활용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증언, 여러 연구 결과물들이 그랬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미 제25사단장 윌리엄 킨(William Kean) 소장이 작성한 메모와 같은 다른 기록들과의 맥락 속에서 제1기병사단의 노근리 주둔을 증명하는 기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 구성 과정은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 및 유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진상 규명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노근리 학살 사건의 생존피해자들의 증언 수집과 소통, 미국 NARA에서의 기록 찾기 등은 일정 시점까지 전문 역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역사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건 피해자들의 노력과 이에 공감하는 언론 등의 노력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공공역사가 단순히 역사학의 한 범주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과정이었다. 1950

www.kci.go.kr

년 7월에 발생한 그 비극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기억을 기록으로 생산해 내는 과정이었다. 또한 다양한 기록들을 찾고 맥락을 구성하여 증거를 만들어 내고 상황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또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공공역사의 활동을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의 '재현의 흔적'으로부터 '증거'가 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파악하면서, 우리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과 공공역사의 상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역사에서는 정은용의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처럼 사건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는 데 중요하고 효과 있는 기록, 즉 사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도 인지할 수 있다. "사실 부친의 노근리사건 실화소설이 있었기에 노근리사건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고, 한미 간의 역사전쟁이자 인권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참극 현장에 노근리평화공원을 세워 후손들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소설 덕분이다."[32] 그런데 또한 미국 NARA에 이렇게 문서기록들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노근리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 이는 증거물로서의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또한 말해 준다. 여러 다양한 기록들이 연계되어 맥락을 만들면서 기록의 힘, 아카이브의 힘을 만들었다. 기록의 힘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그런데 《AP》 본사 안에서 경영진이 이에 대한 보도를 막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부의 전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결국 로버트 포트, 찰스 핸리, 마사 멘도사 등의 치열한 기자 정신에 힘입어 '학살'이라는 표현 등을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일단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취재가 시작된 지

32)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43쪽.

www.kci.go.kr

1년 5개월 만인 1999년 9월 29일 각 언론사에 노근리사건이 타전되었다.[33] 《Newyork Times》와 《Washington Post》, 《Time》, 《Newsweek》, 《NBC》, 《CNN》 등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이를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취재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와 함께 국민일보를 비롯 한국의 언론들 또한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여 주었다. 《BBC》 등 제3국의 언론들도 적극적인 기획·취재에 들어갔다. 노근리사건은 세계의 이슈가 되어 갔다.[34] 이렇듯 기록의 힘은 언론사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휘되었다. 이때 직전까지도 한미 양국 정부는 노근리사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피해자들의 모든 진정서, 청원서 등을 기각하였다.

이렇게 하여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기록들이 증거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들을 해가면서 사회적 공분과 공감을 확보해 갔다. 그리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 사회를 서서히 깊은 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노근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기록이 지속적인 개념 구성을 하여 한국 전체, 전 세계에 걸쳐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미가 큰 기록으로 구성되어 갔다.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이에 기반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개인 기억 그리고 집단기억이 만들어져 갔다. 예를 들어, 로버트 포트는 이러한 문서들이 미군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기록이며, 향후 웨스트포인트(West Point)[35]에서 생도들에게 전쟁범죄와 관련한 교육자료로 가르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에서 보는바, '재현의 흔적으로서 기록', 증거로서의 기록, 개인 및 조직의 기억으로서의 기록, 집단·사회적 기억으로서의 기록으로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노근리사건은 다양하게

33)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97-110쪽.
34)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98-99쪽.
35) 미국 육군사관학교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USMA)

www.kci.go.kr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노근리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생존 피해자를 넘어서서 점차적으로 세계시민으로 확대되는 개념적 구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갔다. 노근리 비극은 평화와 인권의 세계 시민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면서 노근리정신을 정립해 갔다.

이에 따라 또한 동시에 노근리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생존 피해자를 넘어서서 점차적으로 세계시민으로 확대되어 갔다. '노근리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계 시민들이 많아졌다. 《AP》 기자들과 같은 세계의 언론인들이 노근리의 공공역사에 합류하였다. 여기에는 노근리의 공공역사가 트랜스내셔널 역사를 추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는 가운데 노근리 피해자들과 가해 미군들 사이에 화해와 용서의 계기들이 만들어졌다. 정은용의 아내이고, 정구도의 모친인 박선용은 1999년 9월 말 미국《NBC》와의 인터뷰 중에서 미군과 용서·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기자에게 요청했다. 그 후 가해 군인 로버트 데일리(Robert Daily), 사건 당시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제2대대 중화기중대 기관총 사수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용과 인터뷰했던《NBC》팀이 1999년 11월 1일 로버트 데일리를 데리고 한국에 왔다. 그 이튿날 그와 피해자들의 만남이 대전에서 이루어졌다. 데일리는 당시 피난민을 향한 총격 사실을 고백했다, "쌍굴다리 속에 있던 피난민들이 모두 죽은 줄 알았다.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AP 기자가 나를 찾아온 18개월 전에야 처음 알았다"면서 "내가 쌍굴 100m 전방에 설치돼 있던 기관총으로 피난민을 쏘았다."[36]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 "노근리의 기억은 내 머

36)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2쪽.

www.kci.go.kr

릿속 깊숙이 보관돼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이가 들어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점점 죄책감이 심해졌다. 노근리사건은 내 인생의 최대 악몽이다. 여자와 어린이에게 총을 갈겨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는 날까지 머릿속에서 비명이 울리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도 여러 번 받았다."[37] 정구도는 "그는 피해자들과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얼굴이 무척 밝아졌다."[38]라고 기록했다. 공공역사는 단순히 역사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조건 속에 사는 인간의 삶에 관한 것이다. 특히 과거의 비극적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를 하는 역할을 한다. 노근리 피해자들은 용서의 마음을 표했다, 용서를 통해 자신들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고자 하였다. 《NBC》 기자에게 용서·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던 박선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일리 씨 개인에게 미운 마음은 더 이상 없다. 그는 솔직하게 말해줬다. 자기도 많이 괴로웠다고 말했을 때 마음이 풀렸다. 이제 와서 어쩌겠느냐.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잊었고 다른 가해자들, 그리고 미국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하겠다."[39] 생존 피해자의 다른 한 사람인 전춘자는 다음과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50년 맺힌 한이 한꺼번에 풀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지금은 많이 풀린 상태다. 데일리와 함께 많이 울었다. 울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용서하고 싶다."[40] 이렇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용서란 과거로부터의 자유이고 상처를 입힌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41] 정은용은 추후 한 언론사

37)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3쪽.
38)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3쪽.
39)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3쪽.
40)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4쪽.
41)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4쪽. 출처를 알 수 없는 정구도의 인용문.

www.kci.go.kr

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사건이 일어난 후 10년쯤부터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증오심이란 것이 생각보다 사람을 해쳐요. 마음과 몸을 형편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증오심은 다양한 상상력이나 꿈과 희망을 좀 먹듯 해요. 그래서 ‘이래선 아니 되겠다’며 증오. 분노. 비통함 등 모든 앙금을 떨쳐내려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와 우리 유족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42]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데일리를 용서해 줌으로써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공역사가 단순히 역사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조건 속에 사는 인간의 삶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공공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노근리사건과 규명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로 향하는 노근리 피해자들의 위대함, 노근리사건 공공역사의 위대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가 공유해야 할 기록의 힘에 의거한 노근리정신의 정립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만남과 대화는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에서 보면 1950년 7월의 시간과 노근리라는 공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각자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기억을 만들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개념적 구성을 수행해 갔다. 이들이 1999년의 시간과 대전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맥락을 생성하면서 기록의 새로운 개념적 구성을 하였다. 노근리에서 시작된 공공역사가 당시 가해자들의 시·공간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들은 가해 미군들을 또한 피해자로 보기 시작하였다.[43] 한을 신명으로 풀고 노근리 정

42) 〈동양일보〉 조철호회장의 정은용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장과의 인터뷰 기사 (〈동양일보〉, 2010. 4. 5.).

43)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5쪽

www.kci.go.kr

신의 정립으로 승화시켜 갔다. 그리하여 노근리사건 비극은 평화와 인권의 세계시민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갔다. 노근리정신이 세계적 차원에서 정립되어 갔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이었다. 정은용은 "이제는 데일리 씨 개인 차원이 아닌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44]고 강조했다. 차후 로버트 데일리가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 사건 당시 가해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마음의 고통과 치유, 용서의 마음 등이 이 만남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4) 생생한 현장 기록과 아카이브 문서기록 사이의 상승 작용과 효과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노근리 생존 피해자들을 가해 군인들과의 만남과 용서 화해를 위해 1999년 11월 미국 클리브랜드로 초대했다.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13일 펜타곤(국방부) 회의에 참여하고, 이어서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의 생존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도록 기획하였다. 이 계획들이 다 실행됨으로써 〈노근리사건 대책위〉 활동이 절정기에 이르게 되었다.

노근리 생존 피해자들은 펜타곤(국방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진솔하게 개진하였다. 압권은 내셔널 프레스센터 회견장에서 일어났다. 생존 피해자들은 '50년 한'을 쏟아냈다. 이 회견장은 언론들을 통해 전 세계에 중개되고 전 세계시민을 울렸다. 특히, 노근리 철로 위에서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 한쪽 눈을 잃은 당시 13세 소녀였던 양해숙의 증언과 정은용이 소설에서 묘사한 양해숙의 눈을 실명할 때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세계의 주요 언론들, 시민들에 의해 비상한 관심을 받았

44)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34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다. “사건 당시 실명한 뒤 나는 지난 50년 동안 눈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지금껏 내가 사는 마을에 미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미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45) 회견장에 함께 있었던 정구도의 전언은 양해숙 증언의 극적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그런데 증언을 하던 양 씨는 갑자기 안경을 벗고 자신의 의안을 빼서 손에 쥐고 이를 기자들 앞에서 흔들어 가며 그간의 고통을 토해 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해서인지 양 씨의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았다. 그녀가 펜타곤을 방문해 그렇게도 보기 싫어하던 미군들을 만난 데다 미국 언론의 중심인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으니 오랜 세월 억눌려 온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46)

세계 언론을 통해 양해숙이 실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더욱 세계시민의 심금을 울렸다. 양해숙과 그의 동생 양해찬 증언에 의거하여 정은용의 소설에 기록된 사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양해찬의 가족들은 미군 전투기의 폭격을 피해 철도 변의 아카시아 숲 깊숙이 숨어들어갔다. 해찬의 조모를 중심으로 둘레에 해찬의 형·동생과 해찬 및 그의 손위 누이 해숙이가 앉아 있었다. 마침 그때 전투기로부터 투하된 폭탄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폭발, 해찬의 조모·형·동생 이렇게 3명이 사망하고, 전투기의 기층탄환이 해찬 어머니의 아랫배를 스쳐 지나가고 그녀의 발목은 폭격 때 날아온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해찬이도 왼쪽 허벅다리의 정강이의 여러 곳에 폭탄의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 양해숙은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폭격의 폭풍이 그녀의 후두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안구가 튀어나와, 그것이 끈과 같은 것의 끝에서 흔들거렸

45)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62쪽.
46)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62쪽.

www.kci.go.kr

다. '어머니, 아파, 아파서 죽겠어!' 그녀는 큰소리로 외치며 괴로워했다. '어머니, 눈이 흔들려서 아파. 이 눈을 어떻게 하면 좋아?' '해숙아! 어머니도 몸의 여러 곳을 다쳐서 위험하단다. 네 자신이 어떻게든 해봐라.' 해숙은 안구를 떼어서 아카시아 숲 밖으로 던져버렸다. 어린 해찬은 양손으로 어머니의 손위 누이의 손을 잡고 미군 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노근리 쌍굴을 향해 걸어갔다."[47]

사건 발생 당시 생산된 양해숙의 신체 상황과 같은 피해자 기록들, 정은용의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는 이제 격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세계인의 공분과 공감을 사는 기록, 세계인을 움직이는 기록, 세계인의 사회적 기억으로 개념적 구성을 이루어 갔다. 이러한 레코드 컨티뉴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노근리사건 대책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공역사가 세계시민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과 맞물렸다. 사건의 진상들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 5일 미국의 《CBS》가 NARA에서 발견한 로저스(Turner C. Rogers) 메모를 공개하였다.[48] 1950년 7월 25일 생산된 메모 형식의 이 기록에

47)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도서출판 다리, 1994, 149-150쪽. 관련한 양해찬 구술의 다른 버전을 보면, "나는 어머니와 누나 양해숙과 함께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 있다가 폭격을 당했다.…폭탄 터지는 굉음과 요란한 기총소사 소리가 한바탕 지나간 다음 누나의 비명이 들렸다. 폭풍의 충격으로 빠져나온 안구가 피가 흐르고 있는 누나의 왼쪽 눈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었다. '엄마!엄마!눈알이 빠졌어. 어쩌면 좋아?' 누나가 비명을 지르자 하복부와 발목에 파편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가 간신히 말을 했다. '해숙아! 나도 몸이 많이 다쳤다. 꼼짝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마! 엄마! 아파. 아파. 눈알을 떼어 줘.' 어머니는 한동안 누나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맘대로 해라.' 누나는 곧 자신의 손으로 안구를 뚝 떼어 버렸다."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27-28쪽.

48) 미 제5공군 작전참모부장 로저스 대령이 사령관 팀버레이크(Timberlake) 준장에게 "1950년 7월 25일 보낸 메모로서 왜 피난민들을 항공기로 공격하는가? 피난민 공격 금지 지침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근리평화기념관 상설전시관 도록,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58쪽;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231-236쪽.

www.kci.go.kr

따르면 “미 육군은 아군 진지로 접근해 오는 모든 민간인 피난민 대열에 항공기에서 기총소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금까지 공군은 이러한 육군의 요구에 응해왔다.”[49] 이 이후 미군에 의한 무차별 공중폭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계속 발견되었다.[50]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결국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주장한 대로 사건장소와 기간, 사건 전개 과정, 가해 부대 등 노근리 학살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게 되었다. 2001년 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노근리사건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사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성명서를 받아낸 것은 한미관계사나 인권사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이뤄낸 진상규명 활동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미국정부는 당시 사건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추모사업과 배·보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2001년 5월, 《AP》의 노근리사건 탐사보도 팀 찰스 핸리, 마사 맨도자, 최상훈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대책단〉 등 사건 진상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여러 조직이 한미 양국 정부 내에 만들어졌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근리사건은 더욱 깊숙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 측 노근리사건 진상 조사 자문위원회에 숙명여대 사학과의 이만열 교수와 서울대 사회학과의 정진성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들 전문 학자들은 노근리사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뜻깊은 활동들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근리사건 공공역사 활동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

49)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231쪽에서 재인용.

50)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223쪽; Conway-Lanz, Sahr, “Beyond No Gun Ri: Refugees and the U.S. Military in the Korean War,” *Diplomatic History*, Jan. 2005.

www.kci.go.kr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결국 정치적인 차원에서 매듭짓는 데 급급했다. 〈노근리사건 대책위〉에 따르면 2001년 1월 12일 한미 양국 정부는 노근리 학살 사건을 축소·왜곡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미군의 조직적인 지휘명령 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학살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2월에 정구도는 자신을 포함한 국내외 학자들로 〈노근리사건연구회〉를 조직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51] 이후 피해자 단체 및 〈노근리사건연구회〉 소속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을 밝혀내고 학술회의 및 논문 및 저서들의 출판물을 통해 공유했다, 그동안 피해자 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역사가 이제 전문역사가 등 학자들과 함께 수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이루어내었다.[52]

2001년 2월《AP》 기자들의 노근리사건 관련 취재기인 『The Bridge at No Gun Ri(노근리 다리)』가 미국에서 출간되었다.[53] 이 책에서 미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근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가해자 미군들의 트라우마를 자세히 알렸다. 이 책은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와 아이들을 보며 괴로워하던' 아트 헌터의 트라우마와 그의 미치광이 같은 일상의 행동들에 대해 알렸다. 노근리사건 당시 중대장이었던 멜번 챈들러 대위의 트라우마와 가정 파괴, 이혼, 알콜중독, 사망의 삶을 자세히 전달했다. 이렇듯 퇴역 군인으로서 각종의 트라우마에 시달

51)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385쪽.

52) 이를 통해 출간된 논문들을 모아 출판된 책. 정구도 편저,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훈』, 두남 (2002); 정구도 외, 『한국전쟁기 인권침해 및 역사인식의 문제: 노근리사건 등 미군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두남 (2008).

53) Hanley, Charles J., Choe, Sang-hun and Mendoza, Martha, *The Bridge at No Gun Ri. A Hidden Nightmare from the Korean War*, Henry Holt and Co.,New York, 2001.

www.kci.go.kr

리면서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해 군인들의 불행한 상황을 고발했다.

《BBC》 방송은 2002년 2월 1일, 다큐멘터리 〈모두 죽여라: 한국전에서 미군이 한 행위(Kill'em All: American Military Conduct in the Korean War)〉를 통해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생생하게 보도하고 미군들의 증언을 통해 체계적인 명령체계에 의해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고발했다. 이 방송을 위해 《BBC》는 한국에서 피해자 증언 청취를 하고, 미국에서 가해자 증언 청취를 하여 노근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가해자 미군들의 트라우마도 자세히 보도했다. 예를 들어, 조 잭먼(Joe Jackman)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소대장은 미친 놈(mad man)처럼 소리를 질렀다. 발포하라. 모두 쏴 죽여라(kill'em all), 나는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들이 군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목표물이 뭐든 상관없었다. 여덟 살이든 여든 살이든, 맹인이든 불구자든 미친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모두에게 총을 쐈다."[54] 얼리(George Early)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노근리사건 하루 전 중대장이 내게 피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라고 명령했고,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사격할 수 있느냐'라고 반항하자 권총을 뽑아 나의 머리에 겨눈 채 '전투 중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하겠다고 위협했다."[55] 또 다른 용사는 "당시 사격할 때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가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아이가 지금도 꿈에 나타나 내 손을 잡곤 한다."[56] 그러면서 《BBC》는 미국 진상 조사의 축소·왜곡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이어갔다. 이 와중에서 조지 얼리는 서정갑 씨에게 편지를 보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57] 그는 사건 당시 노근

54)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377-378쪽.
55)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378쪽.
56)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378쪽.

www.kci.go.kr

리사건과 직접 관련된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제2대대 소속의 중박격포 전방 관측병으로 당시 상병이었는데, 미군들에 의해 부상을 당한 서정갑 소년을 살리고자 노력했다. 서정갑의 생사를 정확히 모르던 얼리는 《BBC》 취재 과정을 통해 그가 살아 있음을 알고 그에게 그때를 회상하며 감동 어린 우정의 편지를 보냈다.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MBC》의 다큐, 경향신문과 문화일보의 보도도 이러한 측면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국내에서 학술적인 노력들도 지속되었다. 〈노근리사건연구회〉의 회원인 정구도는 자신이 편저로 출간했던 『노근리사건의 진실과 교훈』에 실린 14편의 논문 중에서 7편을 골라 편집하고 번역하여 2003년 영문판을 국내에서 출간하였다.[58] 이는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외국에 널리 알릴 목적에서 출간한 것인데, 외국의 학자와 외국 언론 기관 취재 기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작용하였다. 정구도는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에 2001년 6월부터 13개월 동안 "노근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했는데, 이들을 모아서 2003년 1월 5일, 『노근리는 살아있다』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59] 공공역사의 구체적인 결실들이었다.

미국 뉴욕에서 2001년 9월 11일 소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노근리사건 문제를 계속 해결해 가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미국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을 이루어 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재까지도 노근리사건의 진실한 진상조사가 미

57)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369-373쪽.

58) Chung, Koo-do, *The Truth and Lessons of the No Gun Ri Incident*. Seoul: Tunam, 2003.

59) 이를 기초로 정구도는 2003년 이후 17년간의 공공역사를 추가한 기술하여 2020년 『노근리는 살아있다』 증보판을 출간하였다.

www.kci.go.kr

완에 머물러 있다.

5) 미해결의 배상·보상 문제와 노근리정신

사건 규명이 미완에 그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생존 피해자들은 피해에 합당한 배상·보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2001년 1월 12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진상 조사에 따른 사후처리 방안으로 한국전쟁 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과 유족들의 장학금 사업을 위해 약 4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돈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에 의해 진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한국전쟁 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기금이었다.

이에 대해 〈노근리사건 대책위〉는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한 재조사 요구와 함께 미국 정부가 제안한 기금 사용방안에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기금 사용은 한미 양국 간에 진상 조사가 유일하게 이뤄진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들에만 국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미국 정부에 기금 사용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다른 지역의 피해 사건들에 대한 한·미 간 진상 조사 기회를 막는 것은 물론 피해구제 권리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피해자 요구가 미국 정부의 거부로 관철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배상·보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60] 미국이 제안한 약 400만 달러는 2006년도에 결국 미국의 국고로 환수되었다. 지금까지 진실하고 정의로운 과거사 청

60)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357-360쪽.

www.kci.go.kr

산과 정당한 배상·보상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배상·보상 제안에 대한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이러한 거부는 노근리정신의 중요한 한 부분을 또한 나타내 주고 있다. 〈노근리 미군양민학살대책위원회〉는 2006년부터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로 이름과 조직을 바꾸고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4. 레코드컨티뉴엄과 공공역사 관점에서 보는 『노근리사건법』 제정과 노근리정신의 함양

노근리사건을 규명하는 작업과 피해 배상·보상의 문제가 미완으로 남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말하는 증거에서 기억과 문화 창발로의 개념적 구성 과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노근리사건의 기록들에 기초한 공공역사의 활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결과였다. 예를 들어, 만화가 박건웅의 〈노근리 이야기〉라는 만화는 노근리사건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노근리 인권·평화백일장 대회가 2003년 처음 열렸고 한미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는 2005년 제1회가 개최되었다. 노근리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이 제작되어 2002년 11월 6일, 영동군 난계국악당에서 초연되었다. 《AP》의 노근리 취재기자들이 출간한 『노근리 다리 (No Gun Ri Bridge)』 책이 2003년 한국어로 번역되고[61], 이는 정은용의 책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와 함께 노근리사건을 다루는 영화 〈작은 연못〉의 제작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근리사건 대책위〉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근리사건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법)』이

61) 최상훈, 찰스 핸리, 마사 멘도자 공저 (남원준 역), 『노근리 다리. 한국 전쟁의 숨겨진 악몽』, 도서출판 잉걸, 2003.

www.kci.go.kr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 달 후 정부에 의해 반포되었다. 이를 통해 노근리정신 정립·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력과 활동들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노근리사건법』에 의거해서 노근리평화공원이 조성되고, 노근리평화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이에 힘입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의거해서 볼 수 있는 증거로부터 개인적·사회적·문화적 기억으로의 노근리 기록의 개념적 구성이, 그리고 다양한 노근리 기록을 대중에게 교육하고 문화로 재현하는 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다. 노근리정신을 함양하는 공공역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박건웅의 만화 〈노근리 이야기〉가 완성되어 출판되고, 프랑스어판, 이탈리아어판 등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나갔다. 이러한 세계화에는 정구도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 정구도는 박건웅 만화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근리 만화는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 읽어야 할 만화가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한 만화라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의 생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외 출판이 가능한 출판사를 추천해줬으면 좋겠습니다."[62]

2007년 7월에는 노근리사건을 주제로 한 미술품을 선보이는 전국 순회 기획전 '평화를 그리다'의 전시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데이드림(본이름 연세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을 형상화해서 그린 추상화 10여 점을 노근리사건 피해자에게 기증하였다. 그리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영동군과 함께 2020년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행사로 〈전국 대도시 순회 노근리 사진 및 만화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외에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2022년에도 국회에서 피해자 배·보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62)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344-345쪽.

www.kci.go.kr

〈노근리사건특별법 개정촉구 국회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3년도에는 노근리정신을 미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역량 있는 국내 미술가들을 공모해서 레지던시(입주)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3년 12월에 레지던시(입주) 프로그램 결과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들은 미술을 통한 노근리사건 공공역사였다.

2010년에는 노근리프로덕션(대표 이우정)이 제작한 노근리사건을 다룬 재현 영화 〈작은 연못〉이 일반 극장들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에서 국내 유명 배우들이 노 개런티(No Guarantee)로 대거 출연해주었다.

《AP》에 의해 1999년 9월 말, 노근리사건이 탐사 보도된 후 사건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자 한미 양국에서 소설과 동화 여러 편이 출간되었다.[63]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2021년도에 노근리정신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소설가들과 국문학 전공 교수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노근리 평화 문학 포럼〉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이후 노근리 관련 소설 및 동화 등 다양한 문학 장르의 작품들이 산출되고 있다.[64] 노근리의 공공역사는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소설에서 시작되었을 만큼 문학의 역할은 중요했다.

한미 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 노근리인권평화백일장, 노근리 평화상 제정 등 다양한 문화 창작·교육·평화운동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노근리사건 기록을 기반으로 한 학문적 성과들이 축적되어 갔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들에서 저술된 최수희와 신동희의 박사학위 논문들[65],

63) 미국의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뉴베리상을 수상한 린다 수 박의 『*Keeping Score*』(2010)라는 동화와 유명한 소설가 Jayne Anne Phillips의 『*Lark & Termite*』(2010)라는 소설 등 4편이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김정희의 소년소설 『노근리, 그 해 여름』(2014)과 이현수의 장편소설 『나흘』(2013) 등 3편이 출간되었다.

64) 2022년 이순원의 동화 『노근리의 작은 별』이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출간되었고 소설가 고광률과 박금산 등이 현재 장편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65) Suhi Choi, *The Korean War caught in history and memory: Examining United States media coverage of the No Gun Ri incident (1999—present)*

www.kci.go.kr

백태웅의 석사학위 논문[66], 류무봉 소령의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졸업논문[67] 등을 볼 수 있다.

2014년 평화박물관 국제네트워크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Peace Museums, INMP) 총회 및 국제평화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20년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제1회 노근리글로벌평화포럼, 2022년 제2회 노근리글로벌평화포럼 등의 국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68]

이러한 각 분야의 활동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노근리정신의 정립·확산이 진행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음악으로도 표현되기 시작한 지점이었다. 예를 들어, 노근리 심포닉 칸타타 〈노근리여 영원하라〉가 2007년부터 추진되어 만들어졌다. 2010년 초연되었는데, 이는 노근리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비극과 인권·평화로의 의지를 음악과 가사로 재현한 것이었다. 이 칸타타를 영동이 고향인 조선 초기 세종대에 악학(樂學)을 정리했던 박연을 기리는 난계국악당[69]에서 초연했는데, 이는 인권·평화로의 의지를 음악 예향(藝鄕)으로서의 지역의 역사·전통과 연결시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2010년 노근리사건의 아픔을 음악적으로 승화

---

and Korean survivors' testimonies, Ph.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2006; Donghee Sinn, *Records and the understanding of violent events: Archival documentation, historical perception, and the No Gun Ri massacre in the Korean Wa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2007.

66) Tae-Ung Baik, *A War Crime against an Ally's Civilians: the No Gun Ri Massacre*. Master's thesis, Notre Dame Law School 2000.

67) Moo-bong Ryoo, *No Gun Ri Incident: Implications for the U.S. Army*. Master's Thesis,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01.

68)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 백서 (2012~2022),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2, 264-298쪽.

69) 난계는 박연의 호. 난계국악당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자리하고 있다.

www.kci.go.kr

시키고 가슴 속에 평화의 메시지를 심기 위해 〈노근리여 영원하라〉라는 제목의 노근리 심포닉 칸타타를 연주했다."[70] 이 곡과 가사를 통해 노근리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폭넓게 공유해 갔다. 이러한 측면을 이 칸타타의 아래와 같은 가사가 잘 나타내 주었다. "화해와 용서의 빛 온 누리에 밝게 비치리라. 밝게 비치리라. 세상 사람들이여! 노근리를 아는가. 이곳에 와서 평화의 꿈을 꾸어라".[7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근리 심포닉 칸타타 제작과 공연 및 공유 활동은 대단히 의미 깊은 공공역사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활동들을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따른 사회적 기억의 문화창조 미래 창조 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노근리정신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노근리평화기념관〉 지하 1층 상설전시실 입구에서 우리는 "인권회복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희생으로 이뤄지며 평화는 누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72]는 표어를 마주한다.

노근리사건과 정신은 겨울연가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데이드림이 작곡한[73] 〈노근리를 그리며〉와 대중가수 윤선애가 부른 〈노근리 하늘〉 같은 대중음악으로도 표현되고 공유되었다.[74] 지금까지 보듯이 노근리의 공

---

70)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기념관 상설전시관 도록』,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94쪽;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 백서(2012~2022)』,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2, 162-164쪽.

71) 정구도가 작사한 노근리 심포닉 칸타타 가사 중에서.

72)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기념관 상설전시관 도록』,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0-11쪽.

73) '데이드림'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 기증하여서 '평화를 그리다'에서 큰 기여를 한 화가이기도 했다.

74) 〈노근리를 그리며〉는 '데이드림'이 2006년 9월에 발매한 『데이드림 멜로디 트리』라는 음반 9번 트랙에 수록된 곡이고, 〈노근리 하늘〉은 2007년에 김의철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대중가수 윤선애가 불렀고, 2012년 윤선애와 김의철의 음반 『그 향기가 그리워』에 정식으로 실리면서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https://youtube.com/

www.kci.go.kr

공역사는 역사가들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모든 분야의 융합이었다.

이렇게 하여 노근리정신은 남북한이, 한국과 주변 나라들이, 세계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을 널리 새겨가고 있다.[75] 그래서 노근리정신은 또한 지구 기후 변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인권·평화와 상생의 세계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활동을 우리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이론에 기초한 지속적인 맥락 구성 속의 공공역사로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성화해 갈 수 있어야 하겠다. 노근리사건 기록들의 지속적인 의미 만들기에 대해 노근리 쌍굴 및 노근리평화기념관, 노근리평화공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디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을 예로 들어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쌍굴 현장과 〈노근리평화기념관〉

앞에서 설명한 대로 1950년 7월 26일 노근리 지역의 철로 위에서 피난민을 향한 미 공군의 폭격이 있었고, 여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이를 모면한 생존자들이 철로 밑 쌍굴로 피난하였다. 그런데 쌍굴 각 양쪽 입구에, 즉 4곳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3일 동안, 29일까지 70시간 동안 사격을 하여 피난민들을 학살하였다. 당시 탄환과 총탄 흔적을 담고 있는 핵심 학살 사건 현장인 노근리 쌍굴은 가장 중요한 기억의 터다.

〈노근리평화기념관〉은 2011년 10월 27일 준공·개관되었다. 이곳에 설치·전시된 '비통의 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살 사건 당시의 쌍굴에

---

watch?v=Ytkx1syok8s&si=BsgIIY3-zKJWL6rN.

75)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808-810쪽.

www.kci.go.kr

서 벌어진 극단적 공포의 비극에 대한 기억을 시·청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노근리평화기념관〉은 사건 당시부터 생산된 다양한 기록들을 보존 및 전시하고 있다. 생존 피해자들 및 가해 군인들의 구술 기록들, 사건 당시 문서기록들 및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이 수집되어 전시 및 제공되고 있다. 그리하여 〈노근리평화기념관〉은 박물관·아카이브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 기록의 힘이 가장 절실하게 발현되는 곳이다.

쌍굴 현장과 〈노근리평화기념관〉은 현재 및 후대의 사람들이 추체험하고 앞에서 설명한 노근리정신을 함양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념을 통해 비극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와 미래를 인권과 평화의 길로 열어가고자 한다. 〈노근리평화기념관〉은 그 설립 이후 현재와 미래를 위해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초한 노근리 공공역사 활동의 핵심 센터가 되어 있다. 세계·지구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노근리평화기념관〉은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을 잘 개발하여 전 세계인들이 이곳을 이용하여 아픈 기억과 인권·평화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를 통해 노근리정신으로 세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원만하고 장애 없이 소통하고 융합함을 뜻하는 불교의 원융무애(圓融無礙) 개념, 서로 연결된 가운데 서로 비추어주고 돌보는 인드라망 사상, 한국의 풍류도 및 동학사상에서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서로 만나고 변화시키면서 공존하는 것을 뜻하는 접화군생(接化群生) 개념 같은 세계적 연결망의 사상과 실제가 실현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연결된 평화와 인권의 세계 시민사회의 비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및 세계평화, 다음에 설명할 인간과 자연의 화해 및 조화를 실현하는, 한국의 전통과 연결되어 세계를 향한 노근리정신이 발휘될 것이다.

www.kci.go.kr

2) 노근리평화공원

노근리평화공원은 전쟁 없는 세계평화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상징을 보여준다. 공원 내에 장미정원이 조성되고, 장미와 코스모스를 위시한 다양한 꽃들과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으로 만든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영화의 제목이 된 것으로서 학살 사건 당시 쌍굴 앞의 작은 웅덩이를 상징한 〈작은 연못〉을 연상하게 하는 연꽃을 품고 있는 작은 연못들이 공원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아픈 기억과 인권·평화의 비전을 다양한 기록으로 담고 있는 평화공원은 또한 사계절에 따른 다양한 아름다움을 품고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학살과 전쟁에서 평화와 상생으로의 창조를 체험하는 공간성을 상징해 준다.[76]

이러한 휴식의 공간으로서 노근리평화공원은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조화, 즉 자연 없이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노근리평화공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 즉 지구평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의거한 공공역사 활동을 통해 이러한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실현해 가야 한다. 노근리평화공원은 “2018년 10월 30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2018년도 국제평화정원 조성 콘퍼런스’에서 명예 국제평화정원으로 선정됐다.”[77]

2012년, 노근리평화공원 개원 초기에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

76)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 백서 (2012~2022)』,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2, 118-152쪽.

77)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730쪽.

www.kci.go.kr

일본어판을 읽고 일본 시민들이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하였다. 그 뒤에는 매년 영국·독일·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중동지역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문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미국 시민들과 미군들이 노근리평화공원에 8차례나 방문해서 노근리 쌍굴과 노근리평화기념관을 관람하고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헌화 분향도 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했다. 이제 노근리평화공원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이 평화의 순례지로서 노근리평화공원을 찾고 있다. 국제(트랜스내셔널) 공공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마음 깊은 상처에 대한 치유, 세계평화와 지구 살리기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가야 할 방향이다. 세계시민 모두가 평화공원을 직접 찾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기에 메타버스 등 세계·지구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미들을 담은 사이버 공간을 개척해 가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이를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반한 공공역사를 세계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겠다.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이 공간에 사건 희생자들의 합동 묘지가 조성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합동 묘지와 평화공원은 공존할 수 없는 법적 조건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묘역을 다른 곳에 조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곳이 대중들이 편하게 즐겨 찾는 평화공원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초한 공공역사가 전개될 수 있는 풍부한 상징과 의미 만들기, 의미 실천의 평화공원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록의 힘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게 되었다. 유가족들이 사건 희생자들의 합동 묘역을 공원 인근 다른 곳에 조성하기로 한 것은 노근리정신이 담긴 의미 깊은 역사적 결정이었다.

www.kci.go.kr

3)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합동 위령제를 우리는 노근리 학살 사건 희생자의 혼을 위로하는 엄숙한 제사인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노근리의 한을 세계의 화해·평화로 승화시키는 문화적 상징으로서 이해해갈 필요가 있다. 노근리정신을 세계적·지구적 차원에서 실현해 가면서 한국 전통의 사상으로서 풍류도, 동학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인내천(人乃天) 개념 같은 지고의 인권사상의 전통 속에서 정립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노근리정신을 한국의 이러한 사상사 전통 속에서 조명하면서 합동 위령제 등의 행사를 세계·지구의 평화 상생을 위한 한국 전통에 기반한 세계시민의 문화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10년의 노근리 심포닉 칸타타 〈노근리여 영원하라〉는 위령의 뜻으로 공연되었다. 2009년 7월 위령제에는 일본의 '악마의 포식'이란 합창단원 300명이 참석하여 함께 공연해 주었다. 다양한 문화행사의 방법으로 위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령제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시민들이 직접 이 위령제에 참여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앞의 평화공원 활용을 위해 제안한 것처럼 의미 가득한 위령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미들의 융합·창발이 가능하도록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 등 세계 주요 언어들로 제작된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 구축 등 여러 발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활동과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의 비전

〈노근리평화기념관〉이 공공역사로서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활동을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담은 다언어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78]을 통해서 전 세

www.kci.go.kr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역사들과 연결해 가는 비전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79] 상보적 관계의 레코드 컨티뉴엄과 공공역사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을 만들어 실현해 가면서 지역사, 한국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지구 역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근리정신의 정립과 재정립 및 세계·지구적 확산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와 연계하여 평화교육관의 활동을 또한 세계 속에 펼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이미 이 방향으로 풍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2022년 8월 찰스 핸리《AP》전 기자로부터 방대한 량의 기록들을 기증받았다. 앞에서 서술하였 듯이 찰스 핸리 기자는 노근리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취재 시점부터 20여 년간의 기간에 걸쳐 수집하고 정리한 참전미군 증언, 노근리 다큐 영상자료, 각종 기밀해제문서 등 총 4,500 페이지 분량의 노근리사건 컬렉션을 기증하였다. 기증 전에 그는 이 기록들에 대해 직접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거기에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을 잘 개발하여 운영하라는 뜻이 또한 담겨있었다.[80]

노근리사건의 역사와 사건 규명 및 노근리정신의 역사는 본 논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지구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이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시공을 초월하는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이를

78) 현재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 주소는 http://archive.nogunri.net/cybr/MainIndex.jsp.

79)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적 기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라는 주제의 연구과제가 수행된 바 있다.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60071.
이를 기초로 더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0) 관련 기사, 불교공뉴스 (http://www.bzeronews.com)

www.kci.go.kr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노근리사건 규명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과 공공역사의 상보적인 역할에 기반 한 기록의 힘과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 즉, 끊임없는 의미 만들기를 살펴볼 수 있었다. 노근리사건의 경우 이렇게 생성된 기록의 힘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작용한 사례에 해당했다. 노근리의 학살 사건에서 발생한 기록들이 다른 다양한 기록들과의 지속적인 맥락 구성을 통해 재현의 흔적에서 증거로, 증거에서 다시 기억으로, 문화 창발의 원동력으로 끊임없는 개념적 구성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기록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의연한 정신과 공공역사로 인지될 수 있는 활동들이 근간을 이루었다.

이러한 역동성들은 노근리 학살 사건을 규명하고, 인권과 화해·평화를 위한 노근리정신이 정립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뒷받침했다. 그리하여 앞의 '머리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노근리정신이 세계·지구 차원에서 잘 실현되고 나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고 투철한 기록·역사전쟁을 수행해 온 경험을 더욱 살리고, 관용의 정신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 온 정신을 더욱 뜨겁게 펼쳐갈 것이다. 전쟁 중의 인권 경시를 냉철한 비판의식으로 성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쟁 없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평화, 공존의 세계·지구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지구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 우리는 노근리 학살 사건을 규명하

www.kci.go.kr

고, 인권과 화해·평화를 위한 노근리정신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역사 활동을 세계·지구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공공역사에 의한 문화 창발의 형태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와 같은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을 풍부하게 적극적으로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세계 각 지역의 공공역사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디지털아카이브플랫폼을 통해 연결해 가면서 지속적인 융합·창발을 풍부하게 이루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하여 노근리정신을 세계화하면서 전쟁과 지구의 환경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세계·지구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평화·공존·공동번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근리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노근리정신이 발휘되는 방향에서 또한 노근리사건 규명이 확실하게 결말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과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배·보상이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노근리사건을 통해 가해 미군들의 고통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노근리 학살 사건의 경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트라우마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 가운데 발생한 계엄군에 의한 시민 학살의 경우와 유사성을 나타내 준다.[81] 이러한 고통들을 위령·위로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비극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공공역사가 앞으로 더욱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81) 5·18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트라우마와 공공역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정인, 「대중역사에서 시민역사로, 그 가교로서의 공공역사」, 이하나 편,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푸른역사, 2023, 263-277쪽 참조.

www.kci.go.kr

참고문헌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노명환,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문화연구』, 제57집, 2016.

노명환, 「디지털 아카이브와 큐레이션에 기초한 디지털 역사학, 공공역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세계의 평화·상생을 향하여」, 『역사문화연구』, 제79집, 2021.

마르틴 뤼케, 이름가르트 췬도르프 저, 정용숙 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0.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기념관 상설전시관 도록』,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 백서 (2012~2022)』,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2.

신동희 · 김유승,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권 3호, 2016.

윤은하, 「노근리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권 2호, 2016.

이동기, 「공공역사 :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 2016.

이동기, 「공공역사의 쟁점과 과제」, 『독일연구』, 52, 2023.

이재곤 · 정구도,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8.12.

이하나 편,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푸른역사, 2023.

정구도 편저,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훈』, 두남, 2002.

정구도 외, 『한국전쟁기 인권침해 및 역사인식의 문제: 노근리사건 등 미군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두남, 2008.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www.kci.go.kr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도서출판 다리, 1994.
최병수 · 정구도, 「6·25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 노근리의 미군 대 양민 집단 살상 사건을 중심으로」, 『인문학지』, 17권 1호, 1999.2.
최상훈, 찰스 핸리, 마사 멘도자 공저 (남원준 역), 『노근리 다리. 한국 전쟁의 숨겨진 악몽』, 도서출판 잉걸, 2003.

Chung, Koo-do, *The Truth and Lessons of the No Gun Ri Incident*. Seoul: Tunam, 2003.
Conway-Lanz, Sahr, "Beyond No Gun Ri: Refugees and the U.S. Military in the Korean War," *Diplomatic History*, Jan. 2005.
Hanley, Charles J., Choe, Sang-hun and Mendoza, Martha, *The Bridge at No Gun Ri. A Hidden Nightmare from the Korean War*, Henry Holt and Co., New York, 2001.
Haunton, Melinda & Salzedo, Georgie, "A duty, an opportunity and a pleasure": connecting archives and public history, in: *Archives and Records*, 42(2), November 2020.
Hoyle, Victoria, "Editorial: archives and public history", in: *Archives and Records* 38(1): 1-4, January 2017.
Upward, Frank,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1996.

www.kci.go.kr

ABSTRACT

Identification of the No Gun Ri incident, establishment of the spirit of No Gun Ri, and the power of records:

Analysis and understanding based on the concepts of records continuum and public history

Meung-Hoan Noh*

The author applied the theories of Records Continuum and public history to shed light on the power of records and archives in the process of uncovering the No Gun Ri massacre and establishing the No Gun Ri spirit. Records produced at the time of the incident and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efforts to remember and resolve this incident, especially the oral records of the memories and testimonies of the survived victims and the soldiers who committed the massacre by shooting at the scene of the incident were investigated. The author identified newly produced records, additional records discovered in various institutions, and the nature and social role of records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cultural emergence that is sublimated into art and culture. The interrelated context and interaction process between all records created by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 Information & Archival Scienc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kci.go.kr

the actors leading this proces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connection between Record Continuum and public history.

Keywords : No Gun Ri Incident, No Gun Ri Spirit, Power of Records and Archives, Records Continuum, Public History

www.kci.go.kr

www.kci.go.kr